

# 石龍根 先生님

어느 모임이든지 지금은 규모나 성격에서 많은 비약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그 30년전의 모임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너무도 가족적이고 단출했다.

경북 치우회가 창립된 것이 1956, 8이었으니 어언 20여년이 흘렀으며 오늘의 경북치우회를 위하여 조용히 도와 온 분이 석용근 선생님이다. 평소 성실하기로 이름난 선생님의 이름은 원래는 “석중일” 그후 石龍根으로 개명, 오로지 경북 경산에서만 수 많은 환자를 위 하여 진료해 왔다.

경북치우회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의 모—든 일에도 지극히 협조적이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무에 관한 일이라면 열심히 참여 하였다.

취미가 여행이어서 그런지 75세의 고령이신데도 환자진료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 건강을 지니고 계시다.

“성실”한 성격이 얼굴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온화한 진료실에서 오늘도 환자를 극진하게 돌 보고 계신 석용근 선생님의 만수 무강을 빈다.

그리고 75회 생신을 축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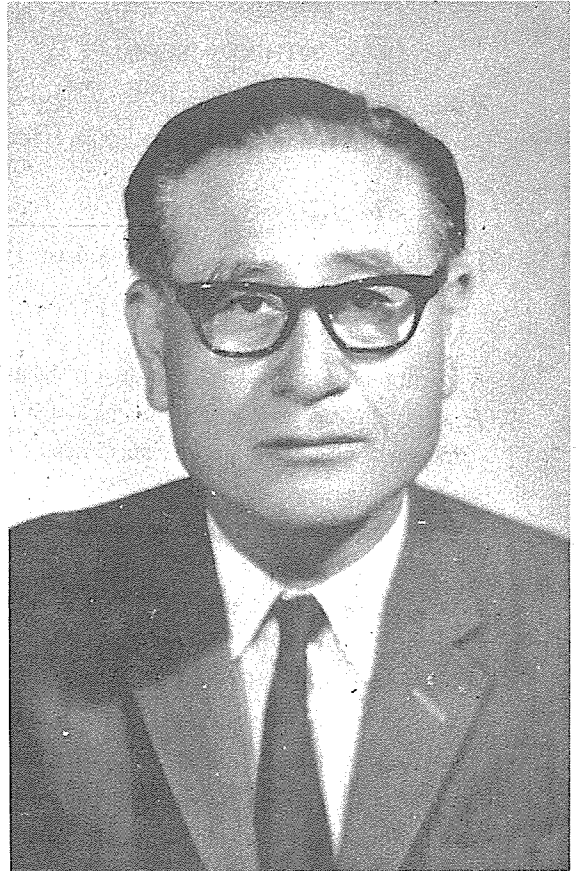
石龍根(만 75세 · 1903. 12. 10생)

경북            경산읍 중방동 348

영남치과의원 원장

전화 경산 248

취미는 여행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 동 환

서울 · 종로구 중로 5 가 231 - 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